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okor finally firms up dual fuel aframax tankers for Shell

장금상선이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113,000DWT급 LNG추진탱커 10척에 대한 미 지불금을 지불했다고 보도됨. 당시 5척의 옵션분이 더 있었으며, 현재 확정 발주 시한은 지났다고 보도됨. 한편 기 발주한 LNG선 4척에 대한 진행상황은 미궁에 빠져있으며, 최근 데이터베이스 상 선박의 납기가 모두 2022년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Mitsui E&S winds down shipbuilding production in Japan

수주잔고가 급감하면서 Mitsui E&S는 Tamano 야드에서 진행하던 선박건조사업을 철수하고 파트너사의 건조활동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최근 사업계획 발표에서 회사는 Tamano 야드의 수주잔고분을 끝내면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 Tsuneishi Shipbuilding 등 파트너사들의 건조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TradeWinds)

LNG 수송 수요 증가 기조

다수의 에너지 판매 업체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LNG를 구매하기 위해 LNG 시장을 찾으며 LNG 수송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상반기 중에 계약된 LNG 물량의 3분의 2 매도인이 목적지 도착항까지 운송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착선 인도가격조건(DES, Delivered Ex-Ship)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금년 수주량 56% 감소 예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보다 56% 줄어든 440만CGT의 신조선을 수주할 전망이라고 발표함. 수주 금액은 지난해 대비 52% 줄어든 110억달러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하반기에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LNG선 및 LNG 추진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인수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인수 자문사로 선정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됨. 인수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7,550만9,366주)이며, 지분 가치는 5,600억원 규모라고 보도됨. (매일경제)

사브, 한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 수주전 참여...LIG넥스원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

외신에 따르면 한국 공군(RoKAF)의 제2차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도입 사업에 사브가 글로벌 아이를 앞세워 수주전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보도됨.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SAAB)가 LIG넥스원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한국의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고 보도됨. 앞서 사브사에서 개발한 대표병탐지레이더 '아서(ARTHUR)-K'를 한국 군에 공급하고, 레이더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바 있어 이와 비슷한 협력단계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더구루)